

금주일언 진실은 거짓으로 하고 거짓을 진실로 한다면 이것은 사악한 계교가 되니 참이익을 얻지 못한다.
(법규경·쌍요품·164쪽)

東大新聞

발행인: 김주익, 편집장: 김주익,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광동3가 26,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교육개혁시리즈

⑦전과제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누구나 한 번쯤 자기가 소속된 과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다.

현재의 학과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특별히 희망하는 다른 과가 있는 1학년 학생들은 '전과'라는 제도를 고려해보지만 기존의 '배학기 18학점 이상 취득, 총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전과의 벽은 높고 무렵기만 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바뀐 전과제도는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자로 그 규제가 완화 조정되었다. 또한 자연계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뺀 인원을, 모순학과대상 전체 20%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전과의 기회를 넓혀주었다.

단 협의학(예)과, 의학(예)과로의 전과 △간학부(과)에서 주간학부(과)로의 전과(과)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간의 전과는 허가하고 있지 않다. 또 서울캠퍼스의 경찰행정학과는 졸업후 취업시 경찰행정학과와의 전과를 4년이상 수료한자라는 제한 요건과 그의 특성 때문에 전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제외한 학과에서 전과가 가능하며 연극영화학과를 포함한 예술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심기고사를, 사범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적성·인성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학부(과)의 전공 주임교수와 학장의 동의를 받아 전과(과)원을 제출하고, 전임희망 학부(과) 전공주임교수의 동의와 학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는 보증인연서가 필요했던 기존의 내용이 삭제되고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로 전환된 것이다.

올해 전과학생은 33명이다. 이는 예년 10명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며 전과를 신청한 50명중 33명이 합격한 것을 감안할때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전과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과는 내년(97년) 2월 20일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김기영 기자)

서울캠— 제29대 총학 구장주·원진욱 당선

경주캠— 제14대 총학후보 2개조 등록

서울캠퍼스 제29대 총학생회 정부 회장 후보로 나선 구장주(아간경영 4)·원진욱(사 4)조가 51.88% 무표율에 찬성 78.86%로 당선됐다.

단선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는 지난 15일 학생회관 1층로비에서 진행된 개표결과 총유권자 1만1백14명중 5천2백47명이 투표해 지난해 56.27%투표율보다 낮은 51.86%로 찬성은 4천1백38명(78.86%) △반대=8백92명(17%) △무표=2백17명(4.14%) △오차=4(0.076%)의 집계로 당선이 확정됐다.

지역별 찬·반 투표수를 살펴보면 △1지역(불교대,예술대)=3백54:77 △2지역(문과대,이과대)=7백68:1백61 △3지역(법과대,사과대,경상대)=7백71:1백95 △4지역(생자대)=1백92:79 △5지역(사범대)=5백2:1백5 △6지역(공과대)=7백99:1백79 지역(야간 강좌)=8백16:96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4지역(생자대)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6.1%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반면에 6지역(공과대)은 총유권자중 40.4%가 투표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12대 총학생회 단독 후보로 나선 김인영(사2)·홍미리(화2)조도 총60.42%의 투표율에 83.89%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총학 투표와 동시에 개표가 진행된 총학생회 총유권자 3천1백23명중 1천8백87명이 투표에 참가해 60.42%의 투표율과 투표 참가자 가운데 1천5백83명(83.89)이 찬성했다.

지역별로 찬반 비율을 살펴보면 △1지역(불교대,예술대)=1백93:32 △2지역(문과대,이과대)=3백61:44 △3지역(법과대,사과대,경상대)=1백47:19 △4지역(생자대)=86:17 △5지역(사범대)=3백60:55 △6지역(공과대)=1백38:12 △7지역(야간강좌)=2백98:42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6지역(50.8%)과 7지역(51.8%)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60%이상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4지역(생자대)이 67.3%로 투표참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제14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기간을 지난 12일로 연장한 끝에 편상규(정보 3)·이범현(철 3)조와 최진호(전산 3)·정해영(국경경영 3)조가 최종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윤성일·고미사4 이하 중선위)는 이날 등록마감후 1차 총투표를 갖고 스튜던트총연대표회(유세일) △투표일시 △선거구분 등 규제사항 △행위규칙 요건 △정제 등의 사항에 대해 양측 입후보자와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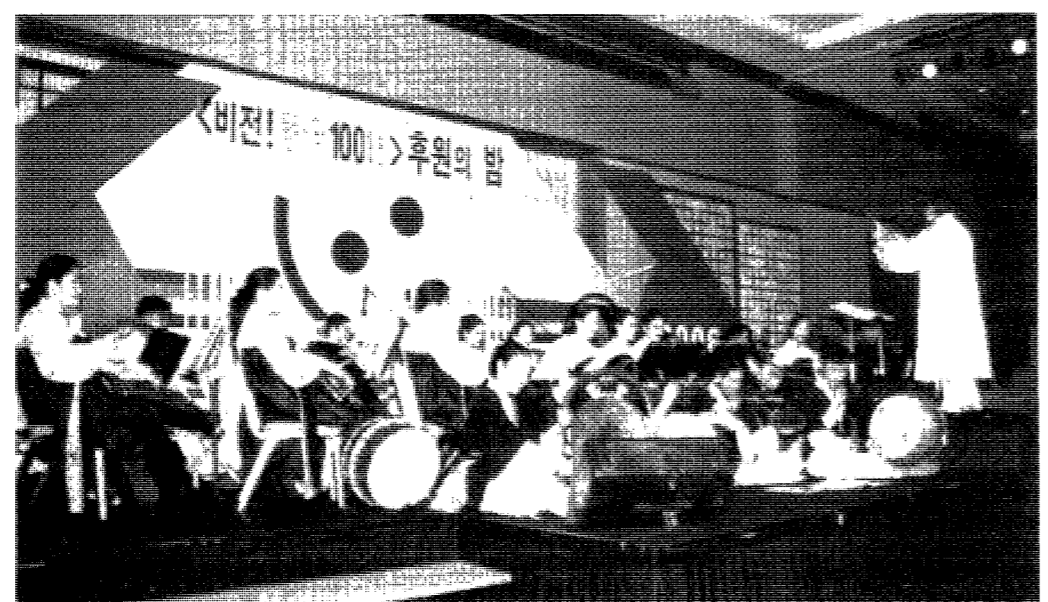
이번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중 유세는 오는 19일에 원효관을 시작으로 △21일-진흥관 △26일-자연대, 야간유세(오후 7시) △27일-북아문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일은 부재자 투표가 오는 27일 한의학과 3·4학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캠퍼스에 있고, 야간강좌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주캠퍼스 진흥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각 대 건물에서 진행된다.

선거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되는 이번 총선거는 초반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선의 위원장 윤성일 군은 "이번선거와 관련해 중선의 대책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진행과정속에서 선거를 하기로 결정되었기에 앞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번선거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끼워졌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비전! 동국1백년' 성황리 개최

기금 56억원 조성... 내외빈 1천2백명 참가



△'비전! 동국1백년' 후원의 밤이 지난 1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교 앞 7백평부지와 5천만원 상당의 교육용 기지재가 기증되었고, 5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취재부)

'비전! 동국1백년' 후원의 밤이 지난 12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오석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황범수 총동창회장 등 내외인사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원효습의 열이 깃든 경주에서 2006년 동국1백주년을 바라보며 민족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 동국가족과 불교인들의 의지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희려한 레이져쇼를 시작으로 M·B·C·나온서 최창섭(경향 74층)등과 92년도 미스코리아 유하영(연영 4)양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 △삼귀의예 △송석구총장의 인

사말 △이사장지사 △내외귀빈의 축하 △발진기악 약장자 인터뷰 △비전! 동국1백년' 사업계획발표 △사홍서원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치뤄진 2부행사는 코디언 김정환(공공·85층)등문의 사회로 △국악과 공연 △악장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치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교 앞 7백평 부지와 5천만원 상당의 상경대 교육용 기지재가 기증되었고 56억원의 기금이 모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주요인사는 최철우(국회의원)등문을 비롯해 임진출(국회의원), 이규중 국민은행

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이택천 경북 경찰청장, 이영철 조흥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등이다.

'아비달마 대비론'완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대장경 시리즈 '아비달마 대비론' 번역판 7, 8책을 끝으로 지난 15일 원역 2백여권을 8권으로 완역했다.

93년부터 역경원 위원인 송성수의 번역작업으로 이미 번역판 6권이 나온바 있는 이 책은 소승불교의 철학적 이론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리수

사방에서 퍼져나가는 문화의 향기가 있는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이다.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가장 주목해볼 만한 초창공연과 이 시대 팝의 황제로 불리우는 마이클잭슨 내한공연은 가을을 수놓은 음악의 향연으로서는 단연 앞선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도 머리부터 논란도 많았고 도대체 뭘 소동들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게도 만들었던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열광할만도 하디 싶었다.

황제와 아이들

가수의 행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길 가리를 방황하는 젊은 명예퇴직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 행위에 1백60억원의 공연료라니 미친 것이다. 더구나 아이들의 명목적인 열광을 대중 문화라는 이름으로 부추겨도 좋은 것인가... 그렇게 그의 공연 자체를 마법 같은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분명한 문화의 흐름, 그 세계를 체험하고 수용하는데 그만한 값은 볼 수가 없었다. 따뜻하게 바라보면, 어차피 반드시 필요한 대중 공연 예술의 안목 등 얻는 바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바탕 소풍 끝에 이제 황제는 가고 우리 아이들이 남았다. 아이들은 아직도 열광을 못잊어하고 여전히 황제의 지배를 행복해하면서, 그들도 차츰 어른이 되어갈 것이다. 이 마당에 정작 이들을 마뜩찮게만 여는 어른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문화란 상대적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차이를 지닐 뿐이다. 서양의 음악과 우리의 음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누군가 이미 지적했지만, 음악은 도대체 어떤 정의의 일인 아니다. 공상각처도 음악의 정의할수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보편적 문화의 기준에서 말하면 서양음악이 훌륭한 것처럼 우리의 아악이나 민속의 가락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다.

문제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우리의 것을 들고 졸업 쿠투를 열어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즐겁고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굳이 열광하고 졸도까지 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경박하다고 나무라기만 해왔다. 하긴 어른들 누가 얼마나 자신의 것,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사랑해본 적이 있는가.

문화의 향기 짙은 이 가을에 벌어진 한바탕 소풍은 그동안 '자신을 찾는 일'에 소홀한 우리들 업의 결과이다. 황제를 보내고 아쉬워할 아이들이 안쓰러기만 하다.

이 봉 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관오철교수 기념 장학금 50만원씩 5명 지급

관오철 교수 기념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10월 16일 경상대 학생관에서 있었다.

장학생은 △은부원(경제40 △김용정(경제3) △정현준(야간경제4) △강희문(야간경제3) △선우진(대학원 경제학과) 이상 5명이고 각 50만원씩 지급했다.

관오철 교수의 미망인 김숙자 여사가 기증한 1억원의 장학 기금은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 운용한다.

교수동정

▲장연수(토목공학)=11월4일부터 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2차 지방 환경학술대회발표에 참가.

▲신효선(식품공학)=10월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1996년도 정기총회 및 제37차 학술발표회에서 1998년도 학회장으로 선출.

▲박선영(교육학)=11월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는 제5차 일본 불교교육학회 참석.

▲김영민(영어영문학)=11월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 참석.

▲안기현(컴퓨터공학), 조철재(컴퓨터공학)=11월16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하는 ACM 멀티미디어 국제학술회의 참석.

▲김일중(무역학)=11월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학회 참석 및 유럽4개국 환경정책연구 시찰.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원시인은 모른다

그러나 동대인은 안다

동대신문사

◆제34회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①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②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③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2개 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심사장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7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260-3491-2

◆제1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①시 부문: 3편 내외,
②소설 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③평론 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심사
①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②소설 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③평론 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심사장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7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통합방송법에는 통합의 논리가 없다



김용호
사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사논단 방송법 개혁에 관한 논의

전과법에 의하여 무선방송국으로 허가되면 위성방송국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미 공중에 떠있는 무공회위성의 방송용중계기를 이용하여 방송활동을 하면 그만이다. 외국방송의 수신도 가능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며, 시범사업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KBS는 이미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심의회를 하면 그만이다.

둘째, 심의기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영상물들의 심의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념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실은 수년전 종합유선방송을 도입하면서 공보처 스스로가 해놓은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종합유선방송은 기존의 방송과 다르므로 별도의 법과 규제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던 것을 종합유선방송을 시작하지 불과 2년이 되기 전에 이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방송도입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피할이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유선방송의 시행착오로부터 교훈을 얻어 통합방송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지만, 언론인 방송매스컴에 대하여 정부부처가 나서서 조정모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심

의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심의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듯이 등급제심의 도입도 심의방법상의 변화없이 단순히 심의기구만을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더욱이 방송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의 검열기구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중요한 방송정책기능을 공보처가 장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셋째, 뉴미디어계의 방송산업은 도입기에 막대한 초기투자와 소프트웨어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자본력이나 소프트웨어확보에 유리한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의 참여를 통합방송법에 허용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의 초기시정활동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가입자가 충분하지 않아 가입료수입이 크지 않고, 광고매체로 자리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외채비율로 따져 보면, 종합유선방송이나 지방민간방송의 허가과정에서 많은 자산가들이 방송에 관심을 보인 것을 보아, 중소기업중심의 콘소시엄형태의 소유구조와 전문인들로 구성된 방송경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면 굳이 대기업의 방송사수나 언론사들의 교차소유를 규제 완화하는 것이 불

가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방송사업자개념과 허가시의 공보처의 권한강화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지금의 방송국허가는 송신기술중심의 무선국 개념에 의한 것으로 기술적인 규제만 허용될 뿐, 무선국허가에 방송국 운영이나 편성, 프로그램내용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허가절차는 케이블방송도 마찬가지이다. 방송운영과 관리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부규제를 방송사업전반에 대한 정부규제로 별다른 명분 없이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보처 스스로도 현재 위법고된 방송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리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내내의 대통령선거가 목전에 다가 있는 시점에서,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방송법에 대해 의회가 합사리 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정권이나 정부권한이 아닌 국가장래를 걱정하면서 제안되고 여야의 이해관계나 각당의 당리당락을 벗어나서 대중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방송기법법이 마련될 수는 없는가? 방송기법법을 마련하여 매체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포괄적이면서도 개별매체의 특수성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불공정방송이라는 오해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방송들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고, 중요한 시기에 합리적 여론형성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법대로 현실따로의 국내 풍토에서 법 하나 제대로 세웠다고 일시에 사회전체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겠지만, 방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규칙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국가적 수확일 것이다.

사설

날개 꺾인 학생회 선거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번 학생회 선거는 총학을 비롯한 대부분이 단일 입후보해, 경선이 아닌 찬반투표로 치러졌다. 자연히 각 후보간의 경쟁열기는 찾아볼 수 없고 맥없이 끝나버린 느낌이다. 차기 학생회 위상의 위기이며 이를 심각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데 틀림없다.

이번 선거에서 뚜렷이 나타난 두가지 현상이 낮은 관심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유례없는 단일 후보 등록이다. 각 단체 선거에서 서울캠은 아총을 제외한 7개 단체와 총학이 단일 후보이며 생자대, 법과대, 이과대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경주캠 역시 단체 모두가 단일 후보로 한의대, 의과대는 선거를 연기했다.

다음으로 극히 낮은 투표율을 들 수 있다. 양캠퍼스를 합쳐 투표율이 60%를 넘는 곳은 3개 단체 뿐이다. 모두 50%를 간신히 넘겨 당선자를 냈으며 서울캠의 경우 총학생회는 투표일을 3일간으로 연장하고 야간강좌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나 간신히 과반수를 넘겨 당선 되었다. 공과대는 투표지수 미달로 인해 선거가 내년 3월로 연기되기도 했다.

물론 이 두가지 현상을 놓고 보면, 단일 후보들의 찬반투표 분위기가 자연히 낮은 투표율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층더 사태이후 기존 학생회 조직의 부분회해에 따른 기반의 부재와 그에따라 가속화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도 간과하지 못할 문제이다.

실지어 이런 낮은 투표율이 보여준 선거 무관심 현상을 이용한 사고가 경주캠 총학 선거과정에서 발생했다. 후보자 등록카드달에 어처구니없이 후보들의 등록서류를 도난당하고, 이 사고자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서류를 분실한 후보자가 학기 미이수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었고 이를 고의로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로 그 순수성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고는 학생들의 선거 무관심을 교묘히 파괴하여 오늘 18일 현재 아무런 사실 규명과 책임주요없이 덮여지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이 저하되고, 정치의식이 저급해진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벗어날수 있을 것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개개인인 윤동근, 비운동원이라는 정치활동의 순수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편견을 과감히 뛰어넘는 의식의 개혁이 요구된다. 차기 학생회 또한 이번 사회분위기와 현상들을 학생 정치의식의 전환점으로 삼아 열린 조직으로서의 건전한 학생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한층더 탄력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분명 학생회의 개혁시기를 간언하고 이에 따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눈을 팔다보면 자칫 차기학생회가 내년을 향할 날개없는 비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금 사회에선 경제가 힘들다고 각종 언론이 소리높여 외치고 경제 불황의 이유를 국민들의 과소비 성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살아 할 대학인이 오히려 소비를 꺾었던 사회적 과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대학인의 과소비 현상을 신용카드와 현금카드가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선 현금카드 하나는 기본이고, 과거 이용하기 힘들었던 신용카드도 지금은 친구의 지갑에서조차 쉽게 볼 수가 있다.

비싸서 살 수 없었던 물건도 이젠 카드 하나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 69년 신세계백화점의 카드를 시작으로 그 뒤 80년대 초 은행계 신용카드들이 속속 선을 보였지만, 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된 87년 이후이다. 이때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제 그 역사가 10년도 채 안 되는 우

◇ 대학생 신용카드 실태 무분별한 카드발급 과시수단 이용 발급규제와 합리적사용 요구

리나라의 카드시장은 각각 50년,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의 카드시장 못지 않게 외형이 커지게 되었다.

한국신용카드업협회에 따르면 96년 3월말 발급된 신용카드수는 3천 3백20만개, 지난 88년 3백40만6천개와 비교할때 8년동안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카드사들의 회원 확대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엔 한해 동안 자그마치 7백88만8천개의 카드가 신규 발급되어 졌고, 이는 32.1%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런 증가율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요즘 학내에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고, 구내 은행도 20세 이상에 본인 통장내 10만원의 보유액을

지니면 BC카드 가입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놓았다.

경제학과 모학생의 경우, "1학년 때 용돈을 받기위해 현금카드를 신청했다. 그리고 1년의 거액여 은행 직원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신청해 현재는 BC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쉽게 만들뿐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도 주위사람의 권유로 신용카드 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를 가진 학생들의 대다수는 처음엔 카드 사용을 꺼려한다.

이들은 자제기를 일정한 기간 넘어선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이후에는 처음의 의도와 달리 용돈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상품까지도 구입하게 된다.

이런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과소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월50만원으로 묶여 있던 현금서비스 한도가 해제되면서이며, 개인당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적차크게 벌어져 학생으로도 얼마든지 목돈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자연대 모학과 여학생은 "처음 친구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몇달전 사용할 계기가 생겼는데, 예전엔 살 수 없던 물건을 현금없이 카드로 살 수 있어 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카드사용 대금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지만 후불 사용대금으로 인해 생활비에 자질을 빚었다. 벌써 두달째인데 아직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해 카드사용의 유희증을

보여줬다.

이렇듯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월말엔 연체금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책을 급히 구입하거나 급하게 병원을 찾을때 신용카드만큼 편하게 쓸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대의 모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기전 사야할 물품은 신용카드를 대차하고 이후 월말에 사용대금하는 응용성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용카드는 이제 대학내에서는 물론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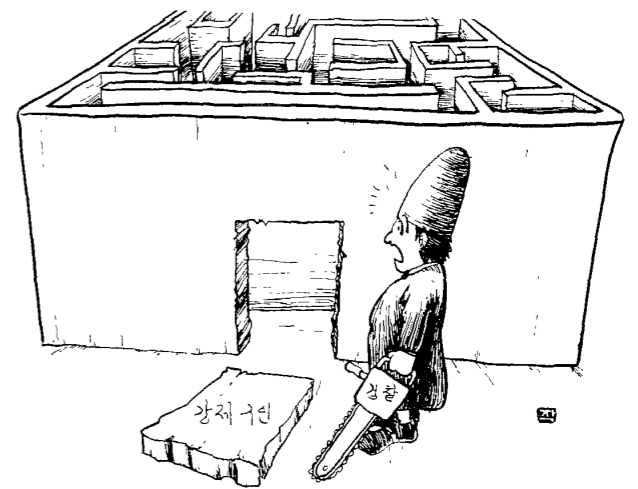
부피가 큰 지폐보다는 카드한장으로 어디에서나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지금, 더 이상의 악용을 막아 대학인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지니도록 이용해야 할 것이다.

(조진성 기자)

동국만평

고대성



인간위주의 경영 - 선정 휴머니지먼트

HUMANAGEMENT

POWER

선경인, 힘이 있는 사람들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경을 키웁니다.

선경은 멈추지 않는 힘입니다.
선경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것은 선경인의 패기입니다. 패기란 일과 싸워 이기는 기질로서 적극적인 사고, 진취적 행동, 빈틈없고 아무런 일처리를 말합니다. 패기는 오랜 기간 동안 다져온 선경인만의 독특한 정신으로서 선경은 이 패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또한 정보통신사업에도 진출하여 글로벌라이선 시대의 세계일류기업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선경으로 오십시오, 멈추지 않는 힘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선경의 힘은 인재를 키우는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선경에는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최고 한달여 동안 실시하는 '진입사원 해외전지훈련', 1년간 해외에 파견, 현지 전문가로 키우는 '파이오니아 포스트', 해외 비즈니스 스쿨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 차세대 경영자를 양성하는 '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미국 유수의 국제 경영대학원에 개설된 '선경 Thunderbird 프로그램', 과장, 차장도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내기업가제도' 등등. 이렇게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는 선경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1년, 365일 선경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선경채용상담실에서 연중상시로 입사면담은 물론 지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365일 인터넷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 대학 4학년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나 선경에 응시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선경채용상담실: (02)728-0212/0222 FAX: (02)753-7401
 ● Web Homepage: http://www.sk.co.kr
 ● E-Mail: joinsk@mail.sk.co.kr

SUNKYONG
鮮京그룹

◇미대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에 민족주의적 국가 출현 원치 않는다

이철기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클린턴 루스벨트 이래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들 바탕으로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정책은 몇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타협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 해온 클린턴 행정부의 민주당 정권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 2기 동안 더욱 뚜렷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둘러싸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간에 미묘한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강경론이 큰 목소리를 차지하고 강경론자들이 특색있게 만나면 결국 한반도는 긴장에 휩싸이고 통일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한편 북한과의 관계 개선정책은 미국 한반도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을 이루고 있다...

◇정신대 문제 관심 촉구 시민연대

'위로는 우리 국민이 할 일...일본은 공식사죄하라' 할머니돕기 운동 국민적 관심 필요

우리들은 중요한 일들을 너무 잘 잊어버린다...

1988년 정신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격앙했다...

그러나 다시 관심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이 시민연대는 일본에서 내세우고 있는 민간위원의 위도급 전담을 절대 반대하며...



◇수요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 시위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전후 처리에 임하게 하고...

시민연대는 지난 92년 '정신대 할머니 해방기금' 국민운동 본부라는 이름으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민연대가 발대식을 가진 지난 10월 18일 이후...

이들 할머니들에게 2백만엔(약 1천5백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일본측의 수준에 맞

◇96 전국 노동자 대회

연내 노동법 개정이 최대 관건 '개악에 대해 총파업 불사' 표명

대학내에서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한층 열거...

이날 정태준, 최도은, 꽃다지 등의 각종 문예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 전야제는...

그러나 체육관 밖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막는 전경들과의 마찰로 1백여명의 학생이 연행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권영길, 이하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1주년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동자대회(이하 노대회)를...

이날 노대회는 민주노총연맹과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한국농부노동조합(이하 한농노조)등...

이행행사는 개정안 내용중 병행근로제, 정리해고제와 함께 공무원·교직원 단결권 보장이...

전교조 위원장 전혜숙은 "대통령이 말하면 세계화가 이뤄질려면 참고육이 우선 시...

또한, 민주노총 권영길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복수노조 및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을...

4시간여의 노대회는 10만 노동자들의 '노동법 철폐'라는 만세삼창과 함께 대회의...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동자대회에 열거한 사회 연설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산하 조합의...

동약로

이 겨울에

지하철 3호선, 수에서 총무까지, 걸리는 시간은 40여 분.



종점에서 출발한 지하철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한다...

이 약간의 거북스런 몸짓으로,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헤치며 한 손에는...

그리고 10여분이 지나왔을까 지저귀는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가슴을 통하게...

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한 중학생이 "난 죽어도 저런 것은 안 한다...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하철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날씨가 부추 추워졌다. 11월도 어느새 12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Advertisement for 015 Narayon Messenger, featuring a woman's face and a mobile phone. Text includes '말만 하면 글로 쓴다', '015 나래텔 메신저', and '세계 최초의 문자메시지 나래텔 대리전 독점상품'.

산술적 통합 아닌 유기적 통합을 바란다

조직체계만 변하고 실질지원은 부족

점점 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대학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보다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96년 초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한 본교 연구원·연구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본교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 대학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라는 부분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교의 연구원은 96년 1월 대대적인 개편(표 참조) 이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씨를 뿌렸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결실을 맺기에는 아직 가꾸고 복돋아 줘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연구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편 이전 1개 연구원, 23개 연구소로 구성된 연구부 체계는, 연구소 설치 규정에 따른 정기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미비한 곳은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소를 단지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이 필요했다"며 개편동기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95년 3월 부속 연구소들은 △교내의 연구 환경의 급속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유화·개발화·세계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 강화 △연구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연구 활성화 유도라는 차원에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질적인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경주 캠퍼스 소속 연구소는 통합을 보류하고 서울 캠퍼스 소속 연구소를 대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통합된 것이다. 여기서 동양학 연구원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보류하며, 학생생활 연구소는 특성상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각각 독립되어 있고, 심할 경우 교수 개인의 사설 연구처럼 운용되기도 하던 연구소들이 연구원으로 개편함에 따라 연

구의 효과를 높여 줄 수 있게 됐다. 우선, 기능이나 연구분야가 유사한 연구소들을 통합하여 집중화·체계화·조직화할 수 있게 되어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연계성이 있는 분야간에 유기적으로 협동하는 학제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 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연구역량을 조직화·극대화함으로써 이를 교육현장으로 피드백시켜 양질의 교육을 생산해내고, 다시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연구의 순환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을 실질적인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하여 산학협력 연구의 산실이 되는 것이다.

본교 연구원은 개편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연구원으로서 이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를 판단할 때가 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연구소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임 연구원 초빙과 채용 문제가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장기적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 임기제는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수 연구원 포상제도 등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에도 경제경영 연구원이나 사회과학 연구원은 기존 연구소 수준에서 소화할 수 없었던 대형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를 촉진시킬 학교의 다각적 지원이 논의되어 연구원 대 학의 연구 활성화에 건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지은 기자)

◇경주캠퍼스 연구소

연구보다 명목위해 설립

제역할 강화 필요

95년 연구소 통폐합 이후 경주캠퍼스의 연구실태는 서울캠퍼스 달리 여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경주캠퍼스에는 △신라문화연구소 △영남발전연구소 △사찰조경연구소 △한국의학연구소 △의학연구소 등 5개 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연구소는 제 역할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라문화연구소는 그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문발간과 외부와의 연계로 겨우 맥을 잇고 있다.

연구소가 유명무실화된 이유를 살펴보면 2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재정적 지원문제다. 이들 연구소는 연간사업으로 특별경연 또는 논문발간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며, 기저재 부족과 함께 연구소와 교수연구실을 겸하는 등 연구실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둘째는 행정적으로 조그맣은 연구소장이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어 연구소의 연구중심성이 아닌 체제유지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한 연구소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와 관련된 초청강연회를 몇 번 개최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둘째 재정지원에 앞서 연구소 설립이 문제가 있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지원없이 명목상 필요에 의해 설립해놓고 지속적인 연구소 운영을 바라건 두리다"고 말한다.

몇몇 동년 연구소 설립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보다 명목상 필요하면 세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연구소들은 그 특성에 부합되는 연구를 못할 뿐더러 지역과의 연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셋째 연구소 활성화와 관련 관련 학과, 교수들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

신라문화연구소는 본교의 여러 학과와 연계가 필요한데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학연구소와 한의학 연구소도 마찬가지다. 의료는 본부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도 연계가 잘 안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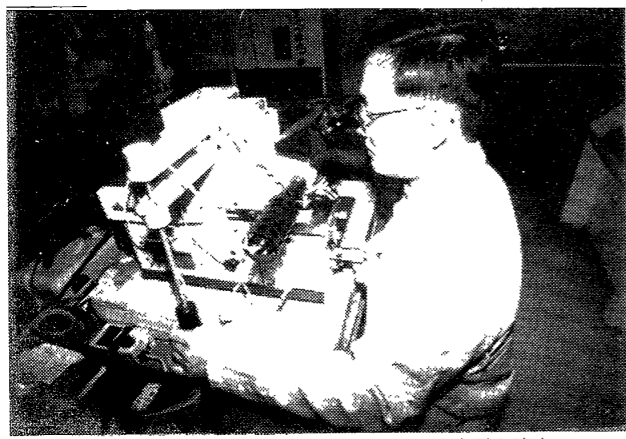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소의 여러 문제점에 반해 지역과의 연계성에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역과 관련된 신라문화연구소와 영남발전연구소는 대외행사시의 후원이나 2~3번의 심포지엄 개최 등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와 관련해 한의학연구소와 의학 연구소도 어느 연구소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연구기간과 수업일수가 많은 교수가 연구원을 겸직해 연구는 힘들지만 다소 지역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각각 특색에 맞는 연구소가 있는 이상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학술화를 통해 제 기능을 찾아야 할만은 당연하다.

명목상 필요에 의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소의 제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조인선 기자)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연구원명	개편이전 연구소	비고
불교문화연구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미술문화연구소, 선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 안보연구소, 공간행정연구소, 사회조사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지역환경연구소, 유림연구원	
경제경영연구원	경제관리연구소, 해외개발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 회계연구소	
산업기술연구원	산업기술연구소, 반도체연구소, 정보통신환경연구소	
자연과학연구원	자연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농림과학연구소	
교육연구원	교육문제연구소	
동양학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일본학연구소	보류
기타	학생생활연구소, 멀티미디어종합연구소	별도운영

처우개선·연구보조비 확대 공통문제

연구원만의 특성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1. 불교문화 연구원

본교의 가장 큰 특성으로 꼽히는 것은 불교이다. 이로 인해 불교관련 연구원 운영이 독자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만한 점이다.

불교문화 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 조직은 원장 아래 각 연구부와 소속 연구원 4명과 연구 조교 1명, 근로장학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개편을 통해 우선 행정상의 처리문제가 통일화, 간편화됐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러나 "연구에만 전념하기에 상황이 미비하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우선 잡무를 담당하는 근로장학생이 아닌 행정상 업무를 처리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그 일을 맡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들이 모두 박사과정 이상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지위가 교수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조교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서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불교문화 연구원을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동국의 모

2. 사회과학 연구원

7개의 연구원이 모였다. 사회과학, 안보, 공간행정, 사회조사, 지역발전, 지역환경, 유림이라는 이름을 걸고 각각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던 연구소들이 모여 하나의 연구원이 된 것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고려한 듯 사회과학 연구원(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구원 체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이곳은 지금 연구원 단위로 수주한 1억 원 상당의 교육부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당장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들은 "연구원 차원의 산학협력 연구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학교측 지원이 부실하다는 점"과 "연구원 내 4명 정도의 전임 연구원이 필요하며, 연구원의 미비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전임강사 수준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실정을 얘기했다.

이에 연구원 차원의 확고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에서 내실있는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3. 경제경영 연구원

본 연구원장 전정원(무역학) 교수는 "개편 이후 연구원의 규모와 조직이 확대되고, 연구수주 실적도 크게 향상되었다"며 연구수주 증가가 아니라 연구원으로서 한 단계 발전한 후 달라진 점을 얘기했다.

일반적으로 통합된 연구원의 위상은 대내외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연구원에도 전임연구원이 없는 것은 다른 대부분의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실정이다.

한편 연구원은 동국관 5층에 연구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연구원으로 이전 할 경우 기존 연구소의 공간은 전적으로 반환을 해야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각 과 소속으로 존재했던 연구소 성격으로 인해 연구소가 각 과 사무실 역할까지 했었다. 그 역할을 할 장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연구원이 연구원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4. 산업기술 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원장=이문보·건축공학)은 77년 산업기술연구소로 출발한 이래 20여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행정업무 전담직원이나 충분한

환경여건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에 매달려야 할 연구원들이 사소한 행정업무에 매달려야 하며,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예산안을 올려도 탈락하기 일췌"라며 나름대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산학협동은 실질적인 실습의 기회라는 것과 현장답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산업기술연구원은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연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연구원(원장=이종훈·수학)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원이다.

이곳은 통합 이후 기초과학부, 생명과학부, 자연과학부 3개 연구부 아래 21개 연구실로 조직을 개편했다.

현재 이 연구원은 교육부에서 1억5천만 원 상당의 연구를 수주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자연과학 연구원은 이번 수주연구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초과학 분야는 연구를 한다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산학협동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며 연구원 자체 연구가 증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 내 연구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할 것이다. (사회부)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원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연구원은 5명정도도 기본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측에서는 제3캠퍼스 조성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는 하나 정확한 시기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구원 으로서는 답답한 상태다.

6. 교육 연구원

교육 연구원(원장=정진환·교육학)은 기존 교육 연구소의 기구 및 조직의 확대·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원이다.

본 연구원은 각 연구부 별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우선 교육정책국은 연구개발 마련을 위해 각 기관에 연구 신청을 하고 계획을 짜서 추진 중이다. 그리고 교육연구부는 초·중·고 교사 연수계획, 본교 부속학교 교직원 연수계획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교육 차원에서 학원 경영자들의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이에 연구원장은 "무엇보다 전임연구원 배치와 필요하다"는 것과, "연구원이 연구와 강의, 학교 행정을 한꺼번에 해내기엔 부담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해박이 주어져야 할 것"을 지적했다.

현재 어느 연구원이나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임 연구원 부족, 연구원 처우 개선 필요, 연구보조비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편이 였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인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회부)

EDITUM
The Original Coordination

TEL: 051-844-2899 FAX: 051-844-289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1 (신원빌딩) 442호 051-844-28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도동 1551-155 032-844-2899

문화단신
책 이야기

2천5백년간의 교육과 자유 1.2...
'동서양 철학자-박인의 에피소드 모음'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은 근엄하고 딱딱하게만 생각되었던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가난하고 못생긴 공작가 소크라테스, 동거녀와 아들을 버리고 새 장가를 들었던 성인 아우구스티누스, 양육비 때문에 다섯 자녀를 고아원에 넣어 버린 교육 사상가 루소, 당구게임과 트럼프 놀이로 학비를 벌었던 칸트 등의 얘기가 짧게 정리된 그들의 사상 개요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2년전 '철학의 세계'를 지은 바 있는 강성철 작으로 각권 7천원이며 푸른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지독한 불꽃...80년대 시집 '대확망'으로 학생운동과 대학 내부의 퇴폐적 현실, 참담한 정치권력의 폭력성을 꼬집었던 본교 국문과 출신인 공광규 시인의 정치·사회적 불꽃을 형상한 3번째 시집.

인간 삶의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 자본과 권력을 '지독한 불꽃'으로 일컫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의 현실타협적 모습을 질타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무지렁이 삶을 권력의 맞은 편에 서게 하면서 그들에게 낙관할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1백60쪽으로 실전문학에서 출판했으며 가격은 4천5백원.

음악 이야기

◇메이데이 음반 발매기념 콘서트...작은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와 청년 학생의 생활 속을 파고들며 목소리를 전파해 온 6인조 밴드 '메이데이'가 첫 음반 '메이데이 VOL1 산 자를 위한 발라드'를 내놓고 음반발매기념 콘서트를 가진다.

하드록의 강한 비트를 선사할 이번 공연은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신촌 라이브 극장 '빛'에서 있다.

◇허비행록 내한공연...첫 내한공연을 갖는 허비행록은 30여년간 끊임없이 재즈의 형식변화를 추구해 온 90년대 재즈계의 살아있는 역사다.

그의 재즈세계는 메인스트림 재즈에서 일렉트로닉에 의한 펌키 스타일, 샘플링을 도입한 재즈퓨전까지 재즈음악의 모든 형식을 아우르고 있다.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하며 가격은 1만5천~6만원.

동아리의 현재와 새로운 모습찾기

7·80년대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인한 대학문화의 소외 소비성 문화 파괴·재구성하는 창조적 문화생산 필요

1. 왜 살아야 하는가?

투박스러우면서도 흥겨운 풍과리와 북소리 대신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전자기타와 드럼의 울림소리가 대학가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단과대마다 있었던 풍물패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고 동아리마다 학우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 것도 이전 당연한 현실인 듯 싶다. 아니, 어쩌면 지겹게도 풍과리와 북을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 유물에만 빠져 변화를 두려워하는 지나친 음조림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단합과 연대만을 얘기하고 개인의 다양한 차이와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풍물패가 동아리는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 과거는? 현재는?

7,80년대는 10월 유신과 12·12, 5·18 등 우리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조용하지 못했던 날들이었다. 그 당시 각 대학의 동아리들은 그 역사의 틀 안에서 정치적인 운동을 주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고 그와 더불어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 대학 문화를 학내에 안착시켰다. 동아리는 하나의 대학을 대변하는 또다른 공동체였고 동아리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풍물패들의 풍물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민중들의 삶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노래패들의 희망찬 노래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 상황이 좀 다르다.

지금 현재 서울권의 경우 총학생회 산하기구인 동아리연합(회장=최동현·국교4 이하 동연)은 8개의 본과로 나뉘어 있다. 학술분과 1·2, 여장분과, 공연분과, 체육교양분과, 봉사분과, 사회분과, 연구분과, 문예분과 등이 그것이다. 각 분과마다 분과장들이 있고 각 분과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60여개의 동아리들이 등록되어 있다. (경주권은 문예분과, 사회봉사분과, 학술분과, 교양분과, 체육분과 등 5개의 분과아래 46



◇ 풍물패들의 어깨가 들썩이는 흥겨운 놀이판.

하지만 이전 이런 풍경도 무슨 날이나 되어야 할 수 있는

행사차려 변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개의 동아리들이 있다) 이들은 8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연합이라는 이름아래 학술동아리와 봉사동아리들이, 그후 85년 이후부터는 공연과 여진 음악들이 대학가오래와 강변 가요제를 타고 우리내 안방까지 흘러들어와 애창곡으로 불렸던 이 시기, 바로 낭만과 꿈이 넘치던 대학 문화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80년대 말과 90년대를 기점으로 이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변했다.

3. 왜?

이것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대량의 자본 유입을 들 수 있다. 이른바 3S, 섹스,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리려는 정치적 목적들이

있었다. 이 시기에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대량의 자본 유입을 들 수 있다. 이른바 3S, 섹스,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리려는 정치적 목적들이



◇ 각각의 특성을 살리고 타 동아리들과의 차별성을 추구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동아리들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하다.

사진은 경주권 동아리 '해방동짓'

적절한 도구로 대중문화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대학문화는 소외되고, 그대신 현재의 대중문화가 급속한 발전과 거대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대학문화가 대중문화를 만들었듯이 반대로 거대한 대중문화가 정체적인 대학문화 속에 파고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대학 교세세대들의 동아리보다 독립된 5~6명 정도의 자유로운 모임을 더 선호하고 집단보다 개인을 먼저 중시하는 사고방식들도 동아리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4. 동아리들의 몸부림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동아리들의 몸부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약하나마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96 열린 동연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불거리를 제창하는 전시회와 시전전 뿐만 아니라 교정청결운동 같은 생활문화운동, 현철중 모으기와 장기중 서명운동, 음비법 사전심의 철폐를 위한 야의 영화제, 동아리 문화를 지역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동자거리문화제', 그리고 경주권의 민중문화운동연합(의장=이병현·철학3)의 시사적인 하나의 주제를 주어주고 생각하게 하는 공연 등은 동아리 문화의 현재와 앞으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었다. 이는 '96열린 동연제'의 취지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동아리는 대학문화의 꽃이며, 참여와 자치로 일구어 가는 대학의 열매이다. 또한 동아리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는 그 대학의 문화수준을 판가름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열린 동연제는 우리들 개인을 고립, 소외시키고 있는 자본의 소비성 문화를 지양하고, 동아리의 창조적 문화생산을 통해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동아리는 하나의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학우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공간이며 건강한 대학문화를 이끌어 가는 대학의 열매이다. 따라서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자본의 소비성 문화를 파괴·재구성하고 남음이 창조적 문화생산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학 동아리들의 참 모습이며 각 대학의 동아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오늘의 공동된 과제인 것이다. (문화부)

대학문화 찾기 시리즈

80년대까지 대학문화를 지탱해온 화두는 '저항'과 '진보'였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화유구를 지닌 '신세대'들이 등장하자 대학문화는 '진보' '공동체'보다 '다양성'의 논리가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디까지 대학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담고 있는 대학문화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 기획을 마련한다 (편집자)

차 례

- 1. 대학문화는 불교되었다. 3. 동아리의 연대와 소통을 향한 몸부림
- 2. 동대문화의 현실 4. 서태지의 저항과 축제를 통한 새길 찾기

달 하나 천장에

세계화 속의 우리들



필자가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 하나. 이 대학에서는 매년 국제 학생 교류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날을 정하여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의 한 이벤트로서 필자는 친선 탁구시합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준비를 마치고 참가 선수들을 살펴보니 같은 대학원 내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탁구를 치던 미국의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공교롭게도 이 친구는 1차전에서 필자와 경기를 하게 되었고 경기 결과는 시작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친구에게 탁구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필자였으므로, 시합이 끝난 후 맥주 한잔과 함께 나는 대화 한 토막.

필자: 왜 이 시합에 참가하였느냐.
미국인 친구: 탁구를 할 줄 알고 또 그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는 탁구를 치면서 내가 공격을 성공시킬 때마다 "나이스 샷"이라고 하였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 상대편에게 정찬의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을 들은 필자는 순간적으로 머리 속에 많은 이유들이 떠올랐다. 내가 나보다도 몇 수 아래이고 엄청난 타이틀이 걸린 시합도 아니라거나, 또는 상대편의 잘한 점을 격려하는 것이 당연적인 미국 풍의 하나라는 등, 그러나 정말로 궁금해하는 미국 친구의 진지한 얼굴 표정을 본 순간 필자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매일 매일 다양한 문화와 사고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중시하는 정이나 정면이라는 것과 이와는 별개로 경쟁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강조하는 서양적 사고가 서로 부딪치게 될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해외여행을 통해서 외국어의 모습을 경험해보지만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역시 한국이 좋아"하고 위안을 삼으면서 그들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소위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문화나 사고방식과 직접적, 간접적 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WTO 협상과 같은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나, 할리우드 영화의 극대 영화시장 장악을 통한 문화적 침투 등의 문제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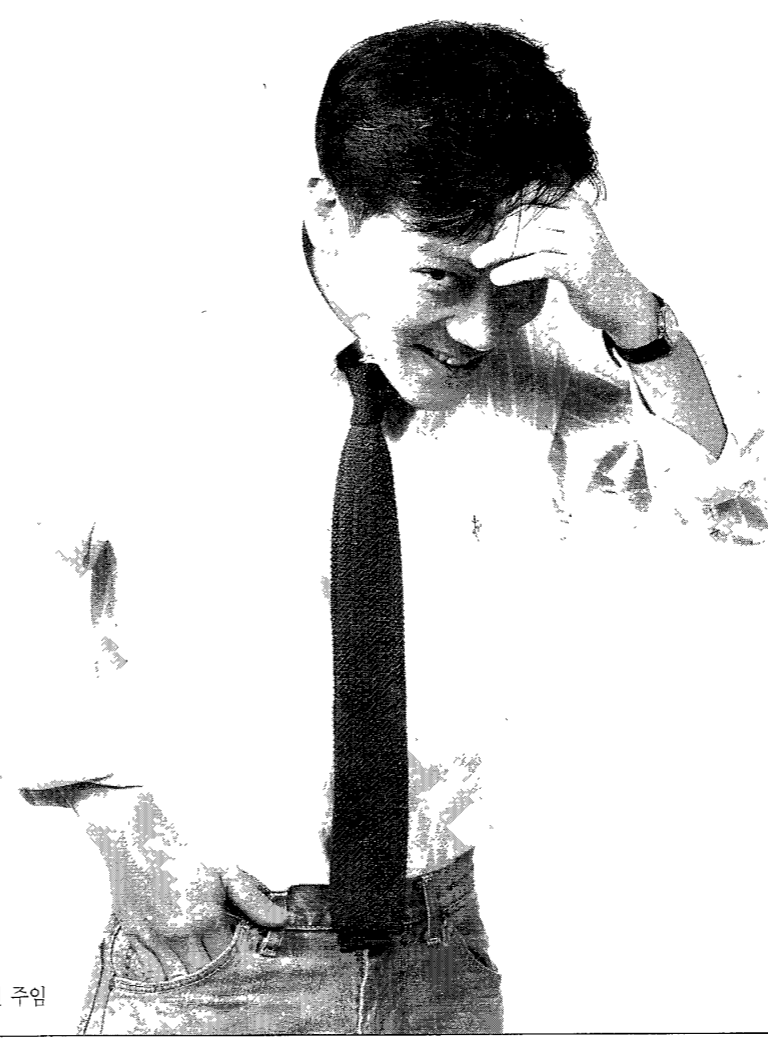
주위에서 자주 들려오는 세계화, 개방화의 목소리가 아직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다른 문화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흘러 보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신드롬을 의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도 문화간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점점 더 우리의 생활속에서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간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단순히 이해하거나 거부하는 차이를 넘어서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바탕 위에서 충돌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마치 모르는 두 남녀가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장 하 용 사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보고드릴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삼성화재 스타지오펜! 작년3월, 김성현 씨는 "자동차사고의 원인 및 유형"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출경비까지 자신의 책임하에 집행하며, 사무실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1년을 결산하는 지난 2월, 김성현씨는 보고할 게 없었습니다. 연구주제는 너무나 방대했으며, 그에 비해 1년은 너무나 짧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성현 씨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김성현씨의 지난 1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실적이 없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스타지오펜! 삼성화재는 1년동안 자율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스타지오펜 김성현 주임

삼성화재에 있는 문헌정보

용모자격 대학대학원생(전문대 및 박사과정 포함) 및 산업계 해당분야 종사자

용모접수미간 1997년 1월 20일(월요일)

용모부서

- 건축·토목부서의 사고예방 • 화학Plant부서의 사고예방
- 각종 제조산업에서의 화재예방

용모테마 용모부서와 관련하여 전문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위험관리 기술논문

용모분량 A4지 50매 이상 (논문요약2매 추가)

등신청 발표 1997년 2월 24일 개별통지

접수처 우편번호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선발 및 시상내역 (총 시상금 2,100만원)

구분	선발	시상내역	비고
대상	1원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500만원	500만원
우수상	2원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300만원	600만원
입선상	5원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100만원	500만원
장려상	10원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50만원	500만원

- 기타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원고에 대한 모든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 용모시 용모부서, 이력,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모위원은 비발표작이더라도, 당선작이라도 표절이나 기밀유출 등으로 판정될 경우 당선은 취소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TEL. 02-775-0484 ~ 7)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삼성화재

◇ 총학생회 진단

학생무관심-중선위 운영 미흡
최초 단독후보·최저 투표율 기록

본교 역사상 처음으로 총학생회 '단독후보출마'와 수치상 최저 투표율이란 기록을 남기고 96년도 선거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의 원인이 학생들의 무관심과 선거운동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성국·컴공4 이하 중선위)의 운영미흡이란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마감시간에 가까워져서야 50% 안정권에 들었다. 투표기달로 인해 선거운동본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빛이 비추어졌지만, 투표마지막날에는 '투표를 올리기' 활동도 전개돼 학생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야간강좌 한 학생은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선거운동원이 강의실까지 찾아와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며 "투표 마지막 날에만 유독 심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결과 51.86%의 투표율에 구장주(야간강좌), 원진욱(사)가 당선되어 선거기간중 야기된 여러 문제점도 우선은 일단락됐으나 그에 따른 파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경선이 아닌 단선으로 치뤄져 찬반투표형식으로 진행될 만큼 50%를 넘는 것은 높은 투표율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개표결과 수치상 51.86%라는 저조한 결과를 낳았고 나머지 약 48%에 해당하는 인원은 선거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야간강좌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의 경우 작년에는 투표일이 2일인 것에 비해 올해는 3일로 1일 늘어나 주간대학과 야간대학 투표시간이 총 6시간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투표율은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진 수치다.

한편 선거운동본부 뿐만아니라 중선위의 선거관리 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4일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개표과정에서 투표표지 처리에 관한 의견이 즉석에서 교환되기도 했으며 중선위의 인원부족으로 선거유세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나왔다.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중선위에서 주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았고 개표과정에서는 단과대마다 투표표지 처리를 달리 적용하기도 했다"며 중선위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무관심과 중선위의 준비 미흡, 선거운동본부의 '투표를 올리기'가 학생들의 눈총을 받으며 진행된 선거는 결국에는 투표참가자중 4천1백38명(78.86%)이 찬성을 표함으로써 마무리됐지만 이로 인해 29대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한상용 기자)

도서관 내부구조 대폭 변경

공간 확대 등 학생 편의에 도움기대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음악학)이 지난 10월 서고 재배치 작업을 시작해 한달 여만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도서관의 내부 구조가 대폭 변경됐다. 지난 여름방학때 교수회관 3층에 있던 연구실들이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그 공간이 도서관 3층 참고도서실과 정기간행물실에 편입되었다. 1백65평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도서관 3층에 생김으로써 지금까지 공간부족으로 부딪던 나와 있던 국내 간행물과 서고안에 있던 국외 간행물들과 참고도서 일부를 개개별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료개가가 기존보다 4배가 늘어났다.

원전 개가한 정기간행물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대신에 참고도서들이 출입하는 문 쪽으로 나왔다. 정기간행물이 있는 공간에 사적자료와 마이크로 리더기와 프린터도 이별할 말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도서관지 시스랩도 지난 6월 설치되어 도서관내에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됐다. 3층의 도서관 공사는 물론 1, 2층 서고에 있던 책들도 재배치에 들어갔다. 2층 서고 한쪽에 자리잡고 있던 참고도서들이 3층 서고에 옮겨져 따라 남겨진 공간에 단행본들 정리작업에 들어갔고 서고 1층에는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어학 관련 책이, 2층에는 과학관련 책들이 정리되었다.

은 기존 도서관에서 사용되던 원도우 체제도 변했다. 빈태이지라스(VINTAGELAS)라는 도서관 검색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지금까지는 도서관내에서만 자료검색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Net Term이 연결되어 있는 국내·국의 어디에서나 LAN이 연결되어 있으면 도서관 자료검색이 가능하다.

전산실 이동규계장은 "앞으로 도서관을 전자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컴퓨터로 책의 유무, 대출 정보만 검색할 수 있지만 97년에는 책의 목차는 물론 그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고, 전자로 2, 3층에도 컴퓨터를 설치, 1층의 컴퓨터도 48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충령 실시단이 방문한 시기에 맞추어 바뀐 도서관 시스템

난방운영 20일부터

영하일 경우 예외없이 실시

관리처(처장=김종욱) 관재과는 교내 난방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20일(백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위 기간에 영하0도 이하일 경우 난방운영을 하게 된다. 각 건물별 난방 운영 시간을 살펴보면 본관·학생회관·원흥관·학림관·체육부 사무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수회관·동공관·과학관·원흥1, 2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명진관·90주년 기념관·동공관·해학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도서관·계산고시학사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그 밖에 건물 역경원·박물관·체육관·학군단·수영장은 난방을 사용하지 않으며, 예술극장·중강당·전시실·세미나 1, 2, 3실은 덩크시스템으로, 금강관 속속은 온돌로 개별 난방을 한다.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20일까지 접수마감

97학년도 재외 국민 및 외국인 특별 전형은 오는 22일 오전 9시 본교 각 지정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를 위한 원서 접수는 교무처 입학과에서 오는 20일 오후5시에 마감한다.

지난 15일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한 학생 중 자격사항을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지며 본교의 학부·계열·학과에 복수 지원 및 복수 지망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인은 사범계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장학금 24억원 수여

총 2천8백15명에게 지급

장학금(과장=오종호)은 96년 2학기 교내·교외 장학금을 총 2천8백15명에게 24억1천5백43만2천2백원 지급했다고 지난 10월 23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교내 장학금은 2천5백53명(1학년 5백67명, 2학년 6백67명, 3학년 7백44명, 4학년 5백75명)에게 20억9천2백44만4천4백원이 수여됐고, 동문회·장학재단 등에서 지급하는 교외 장학금은 2백62명에게 5억2천2백68만7천7원이 전달됐다.

단체 대의원장 선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전성국·컴공4)가 공고한 총선거 일정에 따라 7개 단과대의 대의원장이 선출됐다.

선출된 각 단과대의 대의원장은 △법과대=유은호(법2) △문과대=김경선(문리3) △이과대=양주호(수4) △사과대=함인수(정의3) △경상대=이경희(농경3) △생자대=이경희(농경3) △공과대=한재규(토공2) 등이다.

임무보자가 없는 사범대, 예술대 선거가 내년 3월로 연기됐으며 야간 강좌와 법과대는 단과대 체계상 대의원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대학원 총학생회 돌입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문안식(사학과 박사과정 2학기)·김남명(경제학과 석사과정 1학기) 후보가 단독 후보로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후보자 등록마감을 받은 대학원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원진욱·사회학과 석사과정)는 오는 19일 오후6시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다.

..... 학과소식

국어교육과 제29대 국어교육과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임세화·서지현(조)가 89.5%의 투표율에 56.3%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인문학부 제1대 인문학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서 손성필·최아란(조)가 투표율 73%에 62%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활학과 제29대 활학과 학생회장 선거에서 정현철(군)이 투표율 54%에 83%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응용생물학과 제29대 응용생물학과 학생회장 선거에서 신해룡(군)이 투표율 62%에 8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학·전·무·대

지나친(?) 선거 열기

○...총학투표 마지막날의 동국관 로비는 어느날과 달리 분주했다.

다른 단과대들이 대부분 50%를 넘지 못하고 투표가 끝나자 마지막 날은 야간강좌 투표율이 폭을 겪고 선거인 명부까지 공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결국은 투표율이 50%를 가까스로 넘었다고.

이에 눈물지며 투표한 학생 "우리 동네 이정도 이렇게는 안 뽑는다"며 흥분하기도.

신문도둑

○...4주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동대신문의 호응(?)이 경주에서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데.

오랜만에 나온 신문이라서 그런지 신문이 배부르지 하수가 지나기도전에 신문을 받아 보지 못한 독자들의 문의가 쇄도한 모양.

더욱 해괴한 사실은 학우들이 하교한 저녁 늦게까지도 배부러져 있던 신문이 어느 한순간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소문이 돌니.

동대신문을 예측하는 한 독자 "이상기류를 탐한 총학 선거 분위기가 동대신문에도 관습했는가?"

후문 앞 서커스

○...동하고 시간의 서클렌 후문 도로는 출사 자동차 전시장,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인도, 차도를 구분할 공간도 없거나 달랑 중앙선만 흘러 흐르며, 차속으로 용감무쌍(?) 뛰어드는 행인들은 멋진 극에 사.

병원 직원도 많이 이용할텐데 관계자는 비라과 함께 하러 갔고, 구청이나 경찰 경찰서에서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

방금 곡예를 멋지게 해낸 한 행인 한마디 "길도 막 만들어졌고, 차도 막가는데 나라고..."

오! 놀라워라~

○...겨울같은 가을, 잇단 벼슬아치들의 뒷전 것-경계(?)분황으로 어느해 가을보다 춥다는 백성들.

이런 상황을 비웃기나 한 듯, 호퍼처럼 딱딱한 소식 있어 알아본즉.

익명의 한 아주머니가 어렵게 연명하시는 노 부부를 위해 전세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는 미담이다.

소식을 들은 한 백성의 흥얼 "오, 놀라워라...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아깝단 할거예요"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신규 직원 채용 등 단체협약 논의

본교 노동조합(위원장=김종욱)은 오는 20일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97년 3월로 기한이 끝나는 단체협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신규 직원 채용 및 운용 △사무 기능직 직종전환 △수위경비직 운용 계획 △복합기금 적립 진행 △부서별 행정 연구비 △조과 근무 수당 부분에 대한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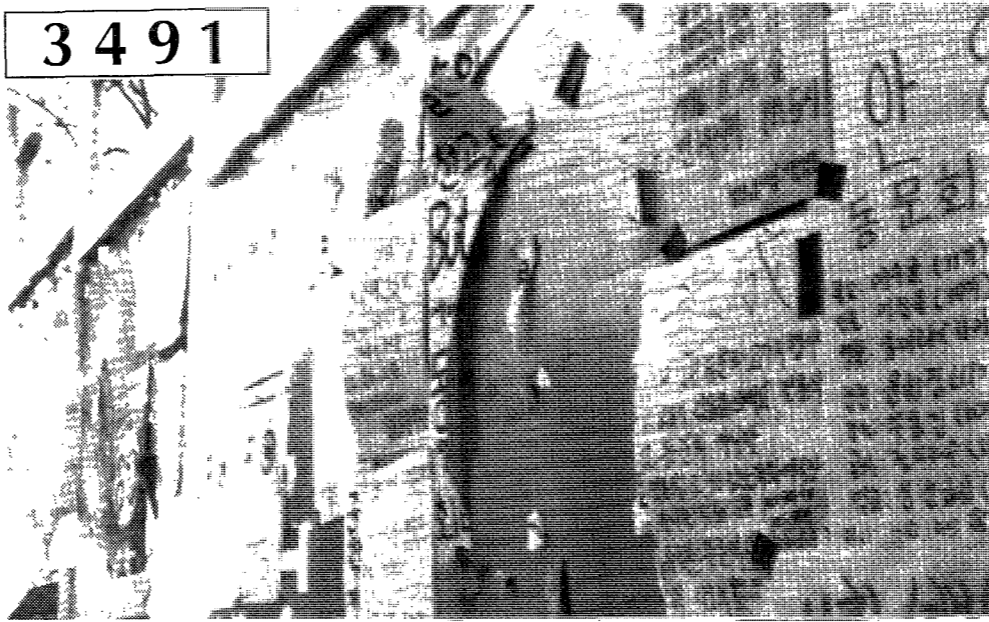
노동조합 최일우 사무국장은 "2년에 한번 개최되는 단체협약에 앞서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사협의회 의의를 밝혔다. 또한 "주요 안전중대부분이 95년 신설된 단체협약에 대해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진행사항을 확인,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협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매년 이루어지는 임금협상은 11월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여학생부처 특강 개최

'창업의 전망과 전략'주제

여학생부처(처장=임은희·사학)는 내일(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림관 소강당에서 '창업의 전망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산업공학과 박준업 교수가 강연하는 이번 특강은 창업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이다.



◇ 걸레계시판...

동 안에 곳곳을 장막(?)하던 대자본의 효과적 경제와 환경미화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중문·후문·학생회관 일구에 고정계시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계시판들을 할부로 다루는 일부학생들로 인해 내용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학생들의 세심한 손질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은 후문에 설치된 고정계시판의 모습. (이태훈 기자)

동절기 난방운영 계획

교내 각 건물 난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난방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열기 사용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난방 운영 기간: '96. 11. 20 - 97. 3. 20(1백25일간) (단 위기간의 영하 0도 이하일경우 난방 운영함)

Table with 2 columns: 시간 (Time) and 건물명 (Building Name). Rows include 08:00-18:00 본관, 학생회관, 원흥3관, 학림관, 체육부사무실; 08:00-20:00 교수회관, 동공관, 과학관, 원흥 1, 2관; 08:00-22:00 명진관, 90주년기념관, 동공관M, 해화관; 06:00-24:00 도서관, 계산고시학사

Table with 2 columns: 난로 (Stove) and 역경원, 박물관, 체육관, 학군단, 수영장, 탁트시랩, 예술극장, 중강당, 전시실, 세미나실 1, 2, 3; 운들 (Covers) 김강관 속소

Table with 2 columns: 시간 (Time) and 건물명 (Building Name). Rows include 08:00-16:00 본관, 학생회관, 원흥3관, 체육부사무실; 08:00-20:00 교수회관, 동공관, 과학관, 원흥 1, 2관, 해화관; 06:00-24:00 도서관, 계산고시학사; 08:00-15:00 원흥3관, 명진관, 동공관M, 학림관, 90주년기념관

관리처장

달라진 병역제도

■ 징병검사장소 변경가능 징병에는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만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교통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징병검사장에서의 수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근의 다른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음.

인접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장 활용가능지역

Table with 3 columns: 거주지역 (Residence Area), 종전 (Former), 개선 (Improved). Rows include 서울북부지역(도봉,강북,노원) 서울 징병검사장 외징부징병검사장; 강원도 철원군 춘천 징병검사장; 경남동부지역(울산,양산,진주) 창원 징병검사장 부산징병검사장; 경북 울진군 대우 징병검사장 강릉징병검사장; 강원 정선, 평강군 춘천 징병검사장 강릉징병검사장; 경기 가평군 의정부 징병검사장 춘천징병검사장

■ 산업기능요원 편입 완화

1.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의 기술자격 미취득자가 지정업체에 우선 취업하여 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받는 직업훈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직업훈련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학력 및 기술자격 등급에 따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력 및 기술자격 등급의 제한을 완화

■ 국외여행 신고 의무자의 귀국신고 제도 개선

국외여행 신고대상자(30세 이상의 군복무필자 및 제2국민역)는 95. 12. 6 이후 귀국자 부터 귀국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공행민간의 범무신고사무소, 지방병무청 또는 읍·면·동에 하던 귀국신고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법무부의 입국심사로 가름함.

병무청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소득세법 제5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96년도부터 대학생 자녀, 형제자매에게 지급된 교육비(납입금)가 근로소득공제대상이 됨에 따라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니 대상학생은 참고하시고 '96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래

- 1. 발급대상: 본인, 부모, 형제자매가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2. 발급기간: 1996. 11. 7~1996. 12. 31까지
3. 발급장소: 해당대학 교학과.

총무처장

음악감상회

교육매체센터의 확충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음악감상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감상곡명
1. Beethoven Sympony NO.5 운명 제1악장
2. Beethoven Sympony NO.9 합창 제4악장
3. Tchaikovsky Violin Concerto 2, 3악장
4. Paganini Sonata for Violin & Guitar No.6
5. Mozart Clarinet Concerto 1, 2악장
■ 해설: 형기주 교수(지리교육과)
■ 일시: 1996. 11. 19(화) 오후4시 30분
■ 장소: 교육매체센터(학림관 3층)
※ Beethoven Sympony는 LD로 연주됩니다.

교육매체센터